

북한핵 무기화에 대비한 한국의 군사전략 선택

이상택(원광대학교)

논문요약

2016년 9월 9일 북한이 실시한 제5차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성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으로서 는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는 사활적 국가이익을 심각하게 침해받게 되었다. 이러한 안 보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북한핵의 무기화에 대비한 한국의 군사전략은 어떻게 구 상되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해답을 구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기된 대명제의 해결을 위한 방법론으로 첫째, 군사전략의 개념은 무엇이며,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가? 둘째, 한국이 군사전략을 결정시에 어떤 요소가 영향을 미 치게 되는가? 셋째, 북한핵의 무기화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현 안보상황에서 한국 은 어떤 군사전략을 선택해야 하는가? 넷째, 한국이 선택한 군사전략을 실효성 있게 구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를 구상하였다. 구상한 문제를 해결해 나 가면서 앞에 제기한 대명제인 “북한핵의 무기화에 대비한 한국의 군사전략은 어떻게 구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구한 결과,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군사 전략 대안은 ‘동맹억제전략’과 ‘공세전략’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주제어: 군사전략, 억제전략, 방위전략, 공세전략, 수세-공세전략, 북한핵, METT+TC

I. 서론

2016년 9월 9일 북한이 제5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북한이 2006년 10월 9일 제1차 핵실험을 실시한 지 10년만의 일이다. 북한의 핵능력은 핵실험 횟수를 거듭할수록 강화되고 있다.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개월이 채 안된 7월말 현재 7번째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을 감행했다. 이는 핵무기를 미사일에 탑재시켜 적국을 공격하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핵무기는 흔히들 절대무기(absolute weapon)라고 한다. 절대무기란 무기 중에 가장 큰 파괴력을 가져 전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무기를 일컫는데,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이 이들 절대무기에 속한다. 중요한 사실은 한국과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북한이 절대무기를 곧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이를 저지시키기 위해 유엔안보리 결의안 등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반면 북한의 핵위협에 직접적인 표적이 되고 있는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가시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조기에 탐지하여 방어하기 위한 무기체계, 즉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놓고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국방부가 격년 주기로 발간하는 2016년 『국방백서』에는 한국군이 국가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국방목표를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다.”¹⁾라고 설정하였다. 한국군으로서는 자주적인 안보역량의 확충은 국가의 생존과 번영, 더 나아가 통일을 위해서도 절대적인 명제라 하겠다. 고대 로마의 황제 베제티우스가 남긴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Si vis pacem, para bellum.)”는 경구(警句)는 적과 교전이 없는 평화상태 하에서도 항상 전

1) 국방부, 『국방백서 2016』, 서울 : 국방부, 2016, p.34.

쟁을 위한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안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과 배경은 북한의 제5차에 걸친 핵실험에 이어 제6차 핵실험 징후들이 발견되고 있으며,²⁾ 멈출 줄 모르고 지속되는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을 계기로 북한 핵문제에서 기인한 한반도의 안보상황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한국의 향후 선택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보유가 임박했다는 문제의식은 많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핵문제 해결을 위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는 곧 다양한 선행연구의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다. 몇몇 학자들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박창희는 한국의 군사전략은 보다 적극적으로 전쟁수행에 주안을 둔 ‘실전기반 억제전략’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핵공격 대비전략으로는 ‘선제적 억제전략’을 주장한다. 이는 북한이 전술핵무기를 사용시 적극적으로 반격하여 전략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이다.³⁾ 권태영·신범철은 북한의 핵위협 상황에서는 자위권의 일부로서 ‘선제공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1발이라도 허용하면 안되기 때문에 핵공격 징후가 확실하게 포착되면 즉각적인 선제공격으로 적의 핵미사일을 파괴해야 한다는 것이다.⁴⁾ 박창권은 한국은 북한에 대해 선제타격 능력과 의지를 보유함으로써 군사도발을 억제하는 능동적 억제전략과 한미가 합의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맞춤형 억제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북한이 핵무기를 직접 사용하는 상황에서는 이를 무력화하는 거부적 억제전략과 북한의 고가치 표적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는 대(對)군사 전략 그리고 북한정권의 정치·군사적 리더십에 대한 응징을 위협하는 대리타격 전략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⁵⁾ 박휘락은 북한핵무기에 대한 한국의 억제전략은 미국의 확장억

2) Joseph S. Bermudez and Jack Liu, "North Korea's Punggye-ri Nuclear Test Site: New Activity at the North Portal," 38 NORTH, March 28, 2017, <http://www.38north.org/2017/03/punggye032817/>(검색일 : 2017. 6. 10.).

3) 박창희, "한국의 '신 군사전략' 개념 : 전쟁수행 중심의 '실전기반 억제.'" 『국가전략』, 제17권 3호, 성남 : 세종연구소, 2011, pp.41-72.

4) 권태영·신범철, "북한 핵보유 상황 대비 자위적 선제공격론의 개념과 전략적 선택방향." 『전략연구』, 통권 제51호, 서울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1, pp.7-47.

제(extended deterrence)에 의존하는 것으로 한미 양국은 맞춤형 억제전략을 수립하여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북한의 핵공격이 임박할 경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은 '선제타격'이라는 점을 강조한다.⁶⁾

선행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핵무기의 절대성에 대해 인식하고 북한핵에 대해서 공세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한다. 한반도의 지전략적 특성상 북한이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여 대량살상과 파괴가 발생한 이후 한국의 응징은 민족의 공멸 가능성만 높일 뿐 큰 의미를 가지기는 어렵다. 다만 아쉬운 점은 북한핵무기 공격의 억제에 주안을 둔 억제전략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반해, 북한의 핵무기 공격 임박 또는 핵무기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위전략의 선택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다는 점이다.

이 연구는 군사력을 중심으로 국가의 생존을 유지 및 증진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모든 방법체계인 군사개념의 구성요소 중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군사전략'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군사전략 결정 분석도구를 활용하여 북한핵 무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의 군사전략의 선택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북한의 제5차 핵실험과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실험을 계기로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전략적 판단하에 "북한핵의 무기화에 대비한 한국의 군사전략은 어떻게 구상되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연구의 범위는 군사전략의 영역이 너무나 방대하여 평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채택하는 '억제전략'과 북한이 공격하거나 공격징후를 포착하였을 때 한국이 방어를 위해 채택하게 될 핵심전략인 '방위전략'으로 한정하였다. 선행연구가 대부분 북한의 핵무기 사용 억제전략의 선택에 집중되었다면 이번 연구는 억제가 실패하였을 때 북한의 핵무기 공격에 대한 한국의 방위전략 선택에 대해서도 비중있게 논의할 것

5) 박창권, "북한의 핵운용전략과 한국의 대북 핵억제전략." 『국방정책연구』, 제30권 제2호, 서울 : 한국 국방연구원, 2014, pp.155-196.

6) 박휘락, "북한핵에 대한 한국 억제전략의 분석 : '거부적 억제' 개념에 의한 방어노력의 재조명." 『국제 정치논총』, 제55권 2호, 서울 : 한국국제정치학회, 2015, pp.293-319.

이다. 앞에 제시한 대명제의 해결을 위한 방법론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여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첫째, 군사전략의 개념은 무엇이며,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가? 둘째, 한국이 군사전략을 결정시에 어떤 요소가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셋째, 북한핵의 무기화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현 안보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군사전략을 선택해야 하는가? 넷째, 한국이 선택한 군사전략을 실효성 있게 구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이상과 같이 제기된 문제의 해답을 구함으로써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더라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한국의 군사전략에 대한 합리적인 모색이 가능할 것이다.

II. 군사전략의 제이론

1. 군사전략의 개념

오늘날 우리가 널리 사용하고 있는 ‘전략’이란 어원은 서양에서는 그리스어의 스트라테고스(Strategos)⁷⁾ 또는 스트라레거스(Straregus)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으며, 장수(general) 또는 정부의 장군급 장교를 지칭하기도 하고 장군의 지휘술(generalship) 또는 장수의 술(the art of general)을 뜻하기도 하였다. 동양에서는 본래 순수한 전시의 군사력 운용개념으로써 싸움 ‘전(戰)’자와 꾀 ‘략(略)’자를 합친 “싸움하는 꾀”라는 의미로 고대중국의 주나라 시대에 『육도』와 『위료자』 등의 병서에서 사용된 전권(戰權), 전도(戰道), 병법(兵法), 병도(兵道)에서 발전된 말이다. 손자(孫子)는 전략을 “선지선자야(善之善者也 : 능란한 것 중에서 능란한 것)”라 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상위적인 꾀”라고 표현하고 있다.⁸⁾ 또한 전략의 개념은 전쟁뿐만 아니라 평시에 있어서의 군사활동도 포함하고 있다. 전략의 중점이 전쟁에 있을지라도 일반적으로 평화를

7) 고대 아테네에서 10개의 부족으로부터 선발된 10개 연대(Taxi)를 총지휘했던 장군의 명칭이다.

8) 신정도, 『전략학원론』, 서울 : 동서병학연구소, 1970, p.1.

관리하는데 실패한다면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⁹⁾

군사전략에 대한 개념적 접근은 군사전략을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의 기술과 이들 요소들이 상호간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다. 군사전략에 대한 개념적 정의 또한 시대와 전쟁양상의 변화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게 표현되어 오고 있다. 군사전략의 개념에 대하여 군사전략가들의 견해에서 공통점을 찾아보면 쉘링(Tomas C. Schelling)과 부츠(Ken Booth)는 군사전략이 극한 정책과 군사적 시위 즉, 위협과 억제기술을 사용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양보를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¹⁰⁾ 오스굿(Robert E. Osgood)은 제반수단을 사용하여 전쟁수행을 위한 전시와 평시의 활동은 물론이고 외교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무력의 전반적인 사용계획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¹¹⁾ 미국의 합참은 군사전략을 “무력의 사용 또는 무력의 위협으로 국가정책의 목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의 군사력을 운용하는 술(art) 및 과학(science)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¹²⁾

앞에서 살펴본 군사전략의 정의에 대한 공통점은 군사분야뿐만 아니라 구성 영역이 확대되어 비군사적 요소도 포함하고 있으며, 군사분야 자체도 군사력의 구성과 유지, 군사력의 전개 및 군사력의 활용분야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군사전략이란 “비군사적인 분야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면서 국가이익과 국가목표 달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군사적 수단을 조성 및 운용하기 위한 군사계획 및 행동방책”으로 정의할 수 있다.

9) John Garnett, *Strategic Studies and Its Assumption*. in John Baylis, et. al(eds.), *Contemporary Strategy and Policies*, New York Holms & Meier Pub., 1976, p.3.

10) Julian Lider, *Military Theory: Concept, Structure, Problems*, Aldershot, England: Gower Pub., 1983, pp.191-250.

11) Robert E. Osgood, *The Entangling Allianc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2, p.5.

12) JCS Pub., *Dictionary and Associated Terms*.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Defense, I, 1979, p.217.

2. 군사전략의 구성요소

군사전략의 개념에서 정의한 군사적 수단의 조성은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고 수행할 것인가?”하는 전쟁수단을 조성하고 유지하는 단계로서 제반기능이 포함된다. 또한 군사적 수단을 운용하는 단계는 “준비된 수단을 사용하는 단계로서 주어진 수단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개념적으로 결정하는 사고과정”이라는 것이다.¹³⁾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것은 여러 대안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선택한다는 뜻이며, 여기서 ‘어떻게’의 개념은 ‘무엇을’ 위해 종사해야 할 것인가 하는 목표개념과 ‘무엇을 가지고’ 하는 수단의 개념을 전제로 한다.

라이케(Arther F. Lykke)는 일반 전략개념으로써 군사전략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군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방안은 군사전략개념으로, 수단은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자원으로 하여, 이 요소들의 상호관계를 <표 2>와 같이 등식으로 설명하였다.¹⁴⁾

〈표 1〉 라이케의 군사전략개념

군사전략 = 군사목표 + 군사전략개념 + 군사자원

군사전략은 “무엇을 위해 어떤 수단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하는 목표, 운용개념, 자원의 3요소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클라우제비츠(Karl von Clausewitz)는 군대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전략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버나드 브로디(Bernard Brodie)도 평시의 전략은 무기체계의 선택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군사목표 및 전략개념을 구현시킬 수 있는 수단을 포함시킴으로써 군사자원을 군사전략의 기본요소로 고려하였다.

13) 류재갑, “현대군사전략개념.” 『연구보고서』, 92-13호, 서울 : 국방대학원, 1992, pp.421-422.

14) John P. Steward and Arther F. Lykke, Jr., “Military Strategy: Theory and Application,” Carlisle Barracks, PA: US Army War College, 1982, p.311.

군사목표는 군사능력 및 자원을 투입하여 수행해야 할 특정임무 또는 과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목표’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지향하는 실제적 대상으로 삼음 또는 그 대상”¹⁵⁾ 혹은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장래의 상태”¹⁶⁾를 나타낸다. 리델하트(B. H. Liddell Hart)는 군사전략의 목표에 대하여 “군사목표는 정치목적의 수단인 것이다. 그러므로 군사목표는 정치목표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¹⁷⁾ 군 지휘관은 국가목표에서 군사목표를 도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군사목표는 국가목표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고 군사전략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군사적 표적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적 차원에서 모든 적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가용자원의 범위 내에서 선정해야 한다.

군사전략개념은 운용개념으로서 “군사적 상황을 예측한 결과 채택된 군사행동 방안”으로 정의할 수 있다.¹⁸⁾ 이는 군사전략에 있어서 군사목표가 정해진 뒤에 국내외적 전략환경을 감안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효과적인 운용가능성 여부를 결정짓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군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하게 되는 각종 가능성 있는 방안 중에서 가장 유효한 군사적 방책을 결정하는 선택과정으로 억제, 공세, 수세, 수세-공세 등의 방법 중에서 가장 유효한 방책을 선택하는 과정인 것이다.

군사전략개념을 구상함에 있어서 군사목표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제시된 상위의 목표에 의해 규제를 받기 때문에 융통성과 선택의 폭이 제한되므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로 조정된다. 군사전략개념의 내용은 국가전략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군사목표를 설정하고, 이 군사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의 구상인 것이다.

15) 『국어사전』, http://dic.naver.com/search.nhn?dicQuery=%EB%A9%ED%91%9C&query=%EB%A9%ED%91%9C&target=dic&ie=utf8&query_utf=&isOnlyViewEE=&x=0&y=0(검색일 : 2017. 6. 10.).

16) 『행정학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59607&cid=42152&categoryId=42152>(검색일 : 2017. 6. 10.).

17) B. H. Liddell Hart, *Strategy: The Indirect Approach*. New York: Praeger Pub., 1975, p.351.

18) JCS Pub., op. cit., p.328.

군사자원이란 “군사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제반 인원 및 물자를 말하는데, 특히 군사적 능력을 결정하는 요소로서의 대상을 이른다.”¹⁹⁾ 군사자원의 범위는 군부대나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동맹 및 우방국의 상호협조와 잠재적인 능력도 중요한 비가시적인 군사자원이다. 또한 가용자원의 범위에는 현존전력으로부터 미래의 전력까지도 포함된다.

동서양 군사전략가들의 군사자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손자는 정신력, 지휘관, 병참, 조직, 시간, 지리, 정보, 교리 등을, 클라우제비츠는 정신적-물질적-통계적-지리적-수학적 요소를, 리델하트는 기습(심리), 운동(물질) 등을, 이종학은 사기, 지휘관, 병참, 군대의 양, 군대의 질, 시간(기상), 지형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²⁰⁾ 이들은 각각 독립된 요소가 아니라 내적으로 결합된 유기체적인 것으로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간의 변화를 수반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채택된 군사전략개념에 따라 운용하고자 하는 군사자원은 현재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때 현존하지 않는 요소는 군사력 소요계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3. 군사전략의 유형

군사전략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수세 위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공세 위주로 할 것인가?”로 형성된다. 본래 공세와 수세라는 형태는 전략적인 맥락에서 구분되는 것이며, 작전-전술적 차원에서는 상호 교차되고 지원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나폴레옹(Napoléon Bonaparte)은 전쟁술의 전체적인 구성은 공격과 방어로 이루어진다고 보았고, 마오쩌둥(毛澤東)은 공격과 방어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고 하였으며, 풀러(J. F. C. Fuller)도 방어는 공격의 기반이며, 전쟁술은 공방(攻防)간의 밀접한 상호작용에 의존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방

19) 국방대학원, 『군사전략(이론과 적용)』, 서울 : 국방대학원, 1984, p.89.

20) 노병진, 『도해 손자병법』, 서울 : 도서출판 가나문화사, 1992, pp.80-81.; Karl von Clausewitz, 권영길 역, 『전쟁론(On War)』, 서울 : 양우당, 1982, p.211.; 리델하트, 산상초 역, 『전략론(Stratgy: The Indirect Approach)』, 서울 : 양우당, 1982, p.413.; 이종학, 『현대전략론』, 서울 : 박영사, 1972, p.148.

의 구분이 한편으로는 필요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²¹⁾ 현대의 군사전략 유형은 국가적 상황과 여건, 적 상황, 이용 가능한 수단 등에 따라 국가마다 접근방식이 다르다. 그럼에도 평시에는 전쟁의 방지를 위한 억제전략을, 억제가 실패하면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방위전략을 구사해 오고 있다.

억제는 위협을 수단으로 삼아 상대방을 설득하여 행동을 규제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생각하고 있는 행동을 포기하도록 만들 수 있을 만큼 위협이 심각해야 한다. 이 위협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방법 또한 지혜로워야 하며, 억제의 성공여부는 다음 3가지의 조건에 달려있다.²²⁾

첫째, 역량(capacity)에 있어서 억제자는 잠재적 침략국이 군사전략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침략으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크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군사력을 보유해야 한다. 둘째, 억제자는 군사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intention)를 가지고 있으며, 그 의지를 잠재적 침략국에 전달(communication)하여야 한다. 셋째, 억제자는 군사력을 행사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믿도록 하는 신뢰성(credibility)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억제전략을 수행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자체억제전략과 동맹억제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체억제전략은 적국의 위협에 대해 당사국이 단독으로 억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반면 동맹억제전략은 당사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시켜 억제를 달성하기 위해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다.

방위의 개념은 피아(彼我)간에 군사력의 균형이 깨졌을 때 예상되는 아측의 손실과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해 취하는 조치이다. 따라서 방위전략이란 “적의 도발시 공격을 받는 측이 자국의 영토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

21) Ariel Levite, *Offense and Defense in Israeli Military Doctrine*.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1990, p.109.

22) 이영민, 『군사전략』, 서울 : 송산출판사, 1991, pp.530-533.

다.²³⁾ 방위전략은 사활적 국가이익이 걸려있는 국가생존의 최후수단으로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는 성격의 것이다. 방위전략은 전략태세에 따라 공세전략, 수세전략, 수세-공세전략의 세 가지 형태로 대처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군사작전에서 공격이 주는 이점은 대단히 크다. 현대전에서 기습적인 최초의 일격이 주는 타격효과는 때로는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다.²⁴⁾ 전쟁의 승리보다 전쟁억제를 추구하는 현대전략에 있어서 공격 그 자체는 스스로 억제를 포기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정적 승리에 의해 목적달성이 확실한 경우 또는 적이 거의 확실하게 공격을 개시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공세전략이 유효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여건은 제한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의 정보화 수준과 정밀타격 무기체계, 정보전을 바탕으로 수행될 미래전의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미래에는 채택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볼 만한 군사전략 개념이다. 공세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의 공격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조기경보능력'과 선제기습으로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기습공격능력' 그리고 자국의 의지에 의해 군사력을 운용할 수 있는 '자주국방태세'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수세란 '정복'이라는 적극적인 활동보다는 '보존'이라는 소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전쟁의 정치목적에 관철시키려는 전략적 차원에서의 착안으로 이러한 군사전략개념을 채택할 경우에는 전쟁목적을 국가보존에 두게 된다. 수세전략은 개전시점에서는 적의 기습공격을 허용하는 것이지만 이후의 군사작전은 작전술 이하의 차원에서 다양한 공격과 방어작전이 전개된다. 수세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가 상호간에 신뢰구축을 통한 전쟁발발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여러 채널을 가동해 군비통제와 방어적인 군사구조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해야 한다.

수세-공세전략은 공세적 전략으로 전략목표를 추구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대방의 공격을 전제로 전략적 수세를 취하다가 필요시 즉각 공세로 이전한다

23) 이영민, 앞의 책, p.533.

24) 조지연, 『민족생존전략』, 서울 : 병학사, 1983, pp.115-116.

는 전략개념이다. 이 전략은 공세전략이 가지고 있는 제약요인인 전쟁억제의 포기로 인한 국제사회의 비난여론을 무마시키면서 군사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군사전략 대안인 것이다. 수세-공세전략은 적극성 또는 공세성의 강도에 따라 “방어 → 즉시 반격 → 응징”의 방법과 “방어 → 흡수 → 저지 → 공세이전 → 반격 → 응징”의 방법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개념이 있다.²⁵⁾

4. 군사전략 선택시 결정요인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어 무기화에 성공한다면 핵무기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군사적인 조치에는 한계가 있다. 절대무기인 핵무기에 대해 일반무기로 대응하는 것은 성공의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한국으로서는 국가의 생존을 위해 최선의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최선의 대안을 찾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실효성 있는 군사전략의 선택인 것이다.

한국군과 미군은 지휘관과 참모가 군사작전을 계획하고 수행하기 위한 분석 도구로 ‘METT+TC’ 요소를 활용하고 있다. 군사전략이 부대의 군사작전 수행의 지침을 제공하는 기능에 착안하여 북한의 핵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선택할 군사전략을 결정하기 위한 분석도구로 METT+TC 요소를 활용하여 분석할 것이다. METT+TC 요소는 임무(Mission), 적 또는 임무지역의 상황(Enemy situation), 지형 및 기상(Terrain and weather), 가용부대 및 능력(Troops available), 가용시간(Time available), 민간요소(Civil affairs) 등을 의미한다.²⁶⁾ METT+TC 요소는 최초 미군에서 정보기술의 발달과 전장환경의 복잡성으로 인해 많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 도입하게 되었다. 한국군도 복잡한 전장상황을 분석하고 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평

25) 조지연, 앞의 책, pp.117-118.

26) Headquarters of Department of the Army, *US Army FM 6-0 Mission Command*, Appendix B-10.; 양철호, “한국군의 평화유지활동(PKO)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 METT+TC 분석틀에 의한 군 파병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1권 제11호, 2015, pp.122-124.에서 재인용.; 야전교범 0-1, 『전술』, 대전 : 육군본부, 2013, pp.2-24-2-30.

가하여 부여된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지상군 교리에 METT+TC 요소를 채택하여 발전시켜 오고 있다. 한미 양국군은 군사작전의 계획 및 준비단계뿐만 아니라 작전실시 단계에서도 METT+TC 분석체계를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의 전쟁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한 국가의 국익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경우 국가지도자의 결단에 의해 대부분의 전쟁이 발발하였다. 따라서 군사전략을 결정시에도 METT+TC 요소에 ‘의지(Will)’ 요소를 추가하여 판단한다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군에서 군사작전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적용하는 METT+TC 요소와 ‘의지(W)’요소를 활용한 분석체계의 교리적인 해석에 대해 논의하겠다.

첫째, 임무(M)는 부대가 작전을 실시하는데 맡은 일로서 작전목적을 도출하고 상급부대에서 부여된 과업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식별된다. 통상 임무는 상급지휘관의 의도를 고려하여 상급부대의 작전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립되어야 한다. 이를 기초로 지휘관은 지속적으로 상황판단을 실시하며 시의 적절한 결심과 작전지휘를 해야 한다.

둘째, 적 상황(E)은 상대할 적의 실체를 정확히 분석하여 판단하고 적 지휘관이 어떠한 의도로 어떠한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 보고 강점과 약점을 식별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적 지휘관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논리적인 분석력과 판단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적에 대한 논리적인 분석은 차후에 아군의 대응방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셋째, 지형 및 기상(T)은 전투시 극복해야 할 마찰의 요인이다. 하지만 지형 및 기상의 이점을 잘 활용한다면 전투력 증강의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지형과 기상이 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반영한 계획수립과 작전을 준비 및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가용부대(T)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유형전투력과 무형전투력이 모두 결합된 총체적인 전투역량을 의미한다. 임무를 부여받은 지휘관과 참모는 작전을 계획하여 준비하고 실시함에 있어 가용부대 능력을 평

가하고 가능한 능력범위 내에서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다섯째, 가용시간(T)은 지휘관과 참모가 작전상황을 인지한 순간부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이 개시되기 직전까지 경과되는 시간 또는 적과 아군의 작전속도를 고려한 상대적인 시간을 의미한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전장상황 속에서 시간을 지체하여 대응시기를 상실한다면 적에게 주도권을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용시간은 전쟁의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여섯째, 민간요소(C)는 작전지역 내 민간인, 정부 및 민간기관과의 상호지원 등에 관련된 요소이다. 전장에서 민간요소는 인명이 중시되는 것에 비례하여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기본권 보장은 국제법과 협약 등에 따라 적국의 적성주민에게도 그 권리가 확대되고 보장될 수 있도록 요구받고 있다.

일곱째, 의지요소(W)는 행위자가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또는 행위자의 “선택이나 행위의 결정에 대한 내적이고 개인적인 역량”으로 아군의 전투의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과업의 성공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군사전략의 유형을 선택함에 있어서 교리적인 측면에만 매몰되었다가는 자칫 큰 실패를 맛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군사전략의 위상에 걸맞는 시각에서 METT+TCW 요소를 분석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Ⅲ. 북한 핵위협의 실태

1.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평가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제1차 핵실험을 실시한 후 10년이 지난 2016년 9월 9일에 같은 지역에서 제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은 2012년 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서문에 ‘핵보유국’을 명시하였다. 이어 2016년 5월 6일 개최된 조선노동당 제7차 당대회를 통해서 개정된 노동당 규약에도 ‘핵보유국’을 명시했을 뿐만 아니

라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우리 공화국은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미 천명한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 하였다.²⁷⁾

〈표 2〉 북한의 핵개발 일시

일자	핵개발 관련내용	비고
1985. 12. 12.	북한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	
1993. 03. 12.	북한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2005. 02. 10.	북한 핵무기 보유 선언	
2006. 10. 09.	북한 제1차 핵실험	플루토늄, 1kt
2009. 05. 25.	북한 제2차 핵실험	플루토늄, 2~6kt
2013. 02. 12.	북한 제3차 핵실험	고농축우라늄(추정), 6~7kt
2016. 01. 06.	북한 제4차 핵실험	수소탄(북한 주장), 6kt
2016. 09. 09.	북한 제5차 핵실험	관계당국 분석 중, 10kt

출처 : “〈그래픽〉 1~5차 북한 핵실험 비교.”연합뉴스(온라인) 2016년 9월 9일,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1000000.html?cid=GYH20160909000600044&input=1363m> (검색일 : 2017. 6. 20.). 기사 내용을 필자가 재구성함.

북한이 이처럼 핵개발에 집착하는 이유는 첫째, 경제기반의 붕괴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을 희석시키고 핵무기 개발을 김정은 최고지도자의 치적으로 포장함으로써 체제결속을 통한 정권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이다. 둘째, 핵무기를 앞세운 ‘벼랑 끝 전술’로 국제사회와의 각종 협상에서 결과를 북한정권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협상카드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핵기술을 테러단체나 핵개발을 원하는 제3국가에 이전함으로써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핵개발과 경제발전의 병진노선”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27)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서문; 『조선노동당 규약』 전문; 『오마이뉴스』, “[전문] 김정은 제1비서 7차 당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2016년 5월 8일, http://www.ohmynews.com/NWS_View/at_pg.aspx?CNTN_CD=A0002207576(검색일 : 2016. 10. 10.).

넷째, 한국과의 체제경쟁에서 뒤처진 결과를 핵무기를 확보함으로써 일거에 역전시키고 한반도 유사시에는 핵무기를 활용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핵개발에 집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북한이 과연 그들이 주장처럼 핵탄두의 소형화에 성공하여 핵을 무기화하는데 성공하였는가? 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올브라이트(David Albright) 소장은 북한은 이미 제3차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의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²⁸⁾ 현재까지 핵무기를 개발한 국가들은 최초 핵실험 이후 2~7년 사이에 핵무기의 소형화에 성공했다.²⁹⁾ 북한은 핵무기 기폭장치를 만드는 고품실험을 지난 20여년 동안 139차례나 실시한 전례를 볼 때 핵무기의 소형화를 달성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³⁰⁾ 핵전문가들은 북한이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포함하여 적게는 10개에서 많게는 20개 정도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³¹⁾ 2015년 2월 24일 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와 미 국방대 대량살상무기연구센터가 1년간의 공동연구 끝에 작성한 ‘북한 핵 미래 프로젝트’ 보고서를 워싱턴 특파원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2020년까지 최대 100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³²⁾ 핵무기는 최초 공격을 받더라도 곧바로 핵반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데, 만약 이 보고서가 예측한대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북한은 제2격을 날릴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의 운반수단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방세계에서

28) David Albright, "North Korean Miniaturization," 38 NORTH, February 13, 2013, <http://38north.org/2013/02/albright021313/>(검색일 : 2016. 10. 10.).

29) "[북한 핵실험 10년 북, 핵무기 실전배치 초읽기...저지할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 『경향신문』 2016년 10월 7일, A5면.

30) "북, 핵탄두 소형화 성공했다... 실전배치 현실화 주목." 『세계일보』 2016년 9월 9일, A3면.

31) 박창권, 앞의 책, p.165.

32) "북한, 2020년까지 핵무기 최대 100개 제조." 『연합뉴스』(온라인) 2015년 2월 25일, <http://www.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2/25/0200000000AKR20150225002900071.HTML>(검색일: 2017. 6. 20.).

핵무기 운반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미사일, 잠수함, 항공기 등을 모두 준비하고 있으며, 핵심적인 핵무기 투발수단은 탄도미사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포동 1호 미사일은 사거리가 4,000km이상으로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으며, 계속적인 성능개량을 통해 대포동 2호급 이상은 사거리를 1만km이상까지 늘린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이 현재 개발하고 있는 핵무기를 과연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 문제는 북한이 과연 국제정치에서 합리적인 행위자인가? 합리적인 행위자가 아닌가?에 의해 북한의 핵무기 사용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정권은 각종 견제장치를 구비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와는 달리 권력이 최고지도자 김정은 한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어 최고지도자의 오판에 의해 불합리한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고위간부들에게 갖가지 죄목을 씌워 고사충이나 기타 잔인한 방법으로 숙청을 자행하고 있으며, 특히 석연치 않은 이유로 친고모부인 장성택을 총살형에 처하는 등 합리적인 행위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최근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최고위층의 탈북이나 주민들의 대량탈북사태 그리고 배급제 국가에서 배급이 끊기는 등 국가기능 마비사태가 발생되고 있어서 북한정권이 붕괴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 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불량국가로 낙인찍힌 북한이 어렵게 개발한 핵무기를 한국을 향해 반드시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이에 대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 북한의 핵전략

북한이 핵전략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하거나 언급한 내용은 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전략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북한이 국제사회를 향해 쏟아냈던 핵 관련 발언, 김정은이 북한 당국자들에게 내린 핵 관련 지침, 제정된 핵 관련 법령, 북한의 군사전략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2013년 3월 7일 외무성 대변인의 발표를 통해 “최고 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침략자들의 본거지들에 대한 핵선제타격 권리를 행사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³³⁾ 북한은 제3차 핵실험 직후인 2013년 2월에는 미 본토 타격계획을 밝히는데 이어 2017년 8월에는 미국의 괌 기지 주변에 4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포위사격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괌 타격계획을 공개했다.³⁴⁾ 또한 김정은은 핵탄 적용수단들의 다종화와 육해공수중의 구분없는 핵공격 준비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³⁵⁾ 북한은 제3차 핵실험 이후 2013년 4월 2일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라는 법령을 제정하면서 “핵 사용 목적을 억제, 격퇴, 보복으로 규정하고, 핵 지휘통제권이 오로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있다고 명기”하고, 핵 사용 교리를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³⁶⁾ 이는 북한이 핵무기의 억제효과에 만족하지 않고 핵무기를 적극 적·공세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은 한국과의 현재 국력격차가 약 25배에 달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결국 정상적인 방법의 체제경쟁으로는 한국의 국력수준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결국 북한이 현재의 한반도 정치경제 상황을 일거에 역전시킬 수 있는 비장의 카드로 핵무기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군사전략은 비대칭성과 공세성을 추구하고 있다. 공세적 군사전략은 북한정권 자체가 무력을 통한 한반도 공산화를 절대목표로 성립되었기 때문이다.³⁷⁾ 북한의 군사전략은 정규전과 비정규전 그리고 전방지역과 후방지역에서의 배합전략, 적이 예상치 못한 시간, 장소, 방법 등에 의해 적을 공격하는 선

33)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7일. 홍우택,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책 연구.”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13-09, 서울 : 통일연구원, 2013, p.15.에서 재인용

34) “北, 미사일 작전지도 의도적 노출... 美 위협하며 협상 제스처.” 『동아일보』 2017년 8월 16일, A5면.

35) “김정은, 핵폭발 시험 지속추진 지시 ‘육해공 구분 없는 핵공격 준비.’” 『파이낸셜뉴스』 2016년 3월 11일, 2면.

36) “北 김정은, 핵무장 고려해 전쟁수행체계 정비 중.” 『연합뉴스』 (온라인) 2017년 5월 1일, [http:// 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27/0200000000AKR20170427079000014.HTML?input=1195m](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27/0200000000AKR20170427079000014.HTML?input=1195m) (검색일 : 2017. 6. 20.).

37) 김연수, “북한의 안보군사전략.” 『비교군사전략론』, 대전 :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pp.313-328.

제기습전략, 미군 증원전력이 한반도에 증원되기 전에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하려는 속전속결전략을 구사해 오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전략은 재래식무기를 기반으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수립되었지만 핵무기의 운용에도 군사전략의 골간은 그대로 유지한 채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공포의 균형’이라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서방국가들이 과거에 추구했던 핵전략 개념을 완전히 뛰어넘는 북한만의 새로운 핵전략 개념으로 발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3. 한국 군사전략에 대한 영향

핵무기는 재래식무기의 불균형을 일거에 뛰어넘는 절대무기라는 점을 언급하였다. 핵무기의 절대성은 무기의 위력에서 찾을 수 있다. 2004년 미국 천연자원보호협회(NRDC: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가 미 국방부 산하 국방위협감소국(DTRA: Defense Threat Reduction Agency) 컴퓨터 모델을 이용해서 서울 용산구 500m 상공에 15kt 히로시마급 위력의 원자폭탄을 폭발시킨 모의실험을 하였다. 결과는 끔찍했다. 서울시민의 10분의 1인 125만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⁸⁾ 국방부는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재래식 무기 중에 가장 위력적인 무기로 현재 한국군이 운용중인 ‘현무-2’가 축구장 수십 개의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³⁹⁾ 그러나 최첨단 재래식무기도 핵무기의 위력에 비하면 초라하기까지 하다. 이처럼 핵무기의 가공할 위력을 재래식무기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군사전략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하겠다.

첫째,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군사전략, 즉 최선의 억제전략의 선택이 필요하다. 절대무기인 핵무기는 한번이라도 사용하게 되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재앙 수준의 참화가 초래될 것이기 때문이

38) “용산에 북핵 터지면 최대 125만명 사망…핵무기 종류별 위력보니.” 『동아일보』 (온라인) 2016년 9월 29일, [http://news.donga.com/3/all/20160929/80543567/1\(검색일 : 2017. 6. 20.\)](http://news.donga.com/3/all/20160929/80543567/1(검색일 : 2017. 6. 20.)).

39) “‘현무2’ 탄도미사일, 800km 발사 성공…올해 실전 배치.” 『SBS 8뉴스』 2017년 4월 6일.

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는 총인구의 약 50%가 집중되어 있다.⁴⁰⁾ 핵폭탄이 한국 인구의 절반이 밀집된 수도권의 중심인 서울 한복판에 투하된다는 시나리오는 끔찍하다. 순식간에 한국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물리적·심리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고, 이는 곧 민족의 생존권을 보장받는다라는 미명 아래 북한에 항복을 통해서라도 즉각 전쟁을 멈추어야 한다는 치명적인 반전여론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결심한 다음 이를 사용하기 전 또는 사용한 이후에도 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군사전략, 즉 최선의 방위전략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그동안 취해온 행태를 고려할 때 합리적인 행위자로서의 국가조직으로 간주하기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 과거 핵무기는 상대국을 위협하는 수단으로만 운용하고 실전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념이 지배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 대표인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2발의 원자폭탄을 투하함으로써 핵무기도 실전에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⁴¹⁾ 북한은 이러한 과거의 핵전쟁 사례를 통해 학습을 했을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최악으로 전개되어 북한이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으로 인식한다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핵무기 효과의 절대성과 치명성을 고려할 때 핵무기는 지구상에서 절대 사용되어져서는 안 될 무기체계이다. 이러한 절대무기인 핵무기의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은 민족의 생존을 위해 기존의 군사전략에 대한 합리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그 결과는 핵무기의 절대성을 상쇄할 수 있는 최선의 군사전략을 도출하여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는 것이다.

40)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http://www.mois.go.kr>(검색일 : 2017. 8. 2.).

41) 1945년 8월 6일에 일본의 히로시마에 '리틀보이(little boy)'라는 농축우라늄235를 사용한 원자폭탄이 투하되었고, 3일 후인 8월 9일에는 나가사키에 '팻맨(fat man)'이라는 플루토늄239를 사용한 원자폭탄이 투하되었다. 이 2발의 원자폭탄으로 인해 한 순간에 약 20여만명이 목숨을 잃었고 일본은 8월 15일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다.

IV. 한국의 군사전략 선택

현재의 한반도 안보상황은 북한의 핵실험이 5차에 걸쳐 진행되면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기정사실화 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정치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북한이 핵실험 횟수를 거듭할수록 핵능력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 결국 국제사회가 북한핵을 인정하든 불인정하든 북한은 실질적인 핵무기 보유국이 될 것이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 한국은 북한핵을 머리에 이고 생활하는 지극히 위태로운 형국에 놓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핵의 무기화가 완성되기 이전에 한국의 국가안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군사전략의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앞서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핵의 무기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한국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확보하기 위해 선택해야 할 최선의 군사전략 대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억제가 매우 중요하다. 그에 못지않게 억제에 실패했을 경우 국가를 방위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북한핵 무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의 억제전략과 방위전략의 선택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1. 억제전략

북한핵의 무기화가 현실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한국의 억제전략은 평시상태가 전시상태로 전환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치 ‘성근 그물안의 물고기는 밖으로 빠져나가지가 쉽듯이’ 북한핵무기에 대비하기 위한 체계를 촘촘히 갖추어 나가야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될 것이다. 한국의 억제전략 선택은 군사전략의 유형판단 도구인 METT+TCW 요소를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분석하면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3〉 억제전략 유형 판단

구분	자체억제전략	동맹억제전략
① M(적합성, 용납성)	△	○
② E(적능력 및 의도)	×	○
③ T(수도권 작전중심)	△	△
④ T(달성가능성, 연합전력)	△	○
⑤ T(가용시간)	△	○
⑥ C(민간요소, 주변국)	△	○
⑦ W(의지요소)	○	△
최선의 대안		○

첫째, 임무(M)를 적합성과 용납성 측면에서 분석하면 임무달성의 적합성 면에서는 현재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체계 만으로는 북한의 핵무기 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 감시정찰 및 타격자산과 전시에 한반도에 증원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략자산의 존재를 북한이 인지하도록 해야 북한의 핵무기 도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용납성에서는 한국내 주한미군의 주둔을 반대하는 세력이 점차 확장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자체 억제전략이 다소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적합성을 함께 고려하면 임무 면에서는 적합성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한 동맹억제전략이 유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적 상황(E)을 북한의 능력과 의도 면에서 분석하면 북한의 핵능력은 1960년대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핵개발 프로젝트와 지금까지 총 5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의도 면에서는 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때 대한 법”에서 북한은 미국과 한국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방침을 설정함으로써 핵사용 의도를 대외에 천명하였다. 이처럼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동맹억제전략이 유

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지형 및 기상(T)에서 지형은 수도권 작전중심 측면에서 분석하면 휴전선으로부터 한국의 국력이 총집결되어 있는 수도권까지의 직선거리가 50km 내외로 매우 얇다. 그렇지만 핵무기 운용 면에서는 이러한 지형적 특성이 자체억제전략과 동맹억제전략의 차별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상 또한 한국의 억제전략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사료되어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넷째, 가용부대(T)는 현재 한국이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군사적 능력과 한미연합전력으로 군사전략의 실현가능성을 분석하면 동맹억제전략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미국은 한반도 정세변화에 따라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잠수함, 항공모함,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 전역에 전개시켜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 또는 무력화시킬 수 있다. 북한이 그동안 ‘주한 미군 철수’를 끊임없이 주장해오고 있는 것은 미군전력이 북한의 군사력 운용과 침략의도 구현에 최대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재래식무기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거나 무력화시킬 수 있는 군사적 수단 또한 매우 빈약하다. 따라서 자체억제전략으로 북한의 핵무기 공격을 억제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하였다.

다섯째, 가용시간(T)은 북한의 핵무기 공격징후를 포착한 다음 대응태세에 돌입하는 시간을 고려할 때 동맹억제전략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현재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공격징후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군사위성, 고고도무인정찰기 등 탐지자산이 없어 미군의 정보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자체억제전략을 채택시 북한핵무기 공격에 대해 한국군이 충분한 대응시간을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여섯째, 민간요소(C)는 전장에서 인명이 중시되는 점을 고려하면 양적·질적으로 북한핵무기를 압도하는 동맹국의 무기체계를 활용하여 한국군과 민간인의 희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동맹억제전략이 유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6년 7월 정부에서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배치계획을 전격 발표한데 이어 경상북도 성주지역에 사드 부지를 확정짓자 현지 주민들을 비롯한 각종 단체를 중심으로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반미를 주장하는 집회와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⁴²⁾ 또한 주변국의 전쟁이전 상태로의 회귀본능과 국제사회의 반전여론의 확산 측면에서도 동맹억제전략이 ‘북한 핵무기 사용억제’라는 군사목표 달성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일곱째, 의지요소(W)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시키기 위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서 지속성을 유지해 나가는 추동력이다. 한국 군을 단독으로 운용할 때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고 조국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전투의지가 충만할 것으로 사료되어 자체억제전략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미동맹군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사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한미동맹은 국제정세와 국내 정치상황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북한의 급박한 공격징후를 포착했을 경우에도 한국의 전쟁억제 의지를 투영시키는데 절차상 지체시간이 소요되어 작전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북한핵 무기화에 대비한 한국의 억제전략을 분석한 결과 ‘동맹억제전략’이 최선의 대안으로 선택되었다. 억제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타격수단, 응징보복전력 등 억제달성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능력 즉, 군사력을 사용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군사력 사용의 능력과 의지가 있음을 북한 당국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그런데 한국군 자체능력만으로 억제를 달성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많고 한국이 자력으로 억제능력을 확보하기까지는 상당액의 군사비 지출과 함께 긴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우방국과 집단안보협력체를 구성하여 공동대처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현재 가장 신뢰성 있는 우방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형성된 미국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역동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국제전

42) “한미정상회담 기간에…美대사관 앞서 “미국은 꺾패.” 『동아일보』, 2017년 6월 30일, A12면.

략환경과 미국 군사전략의 중심축이 국제전략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동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향후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체할 독자적인 억제수단의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2. 방위전략

방위전략은 일단 억제전략이 실패할 경우에 적용하는 군사전략으로서 북한의 핵무기 공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한반도 주변국의 위협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한국의 방위전략 선택은 군사전략의 유형판단 도구인 METT+TCW 요소를 창조적으로 적용하면 효율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표 4〉 방위전략 유형 판단

구분	공세전략	수세전략	수세-공세전략
① M(적합성, 용납성)	○	×	△
② E(적능력 및 의도)	○	×	△
③ T(수도권 작전중심)	○	×	×
④ T(달성가능성, 연합전력)	△	○	○
⑤ T(가용시간)	○	×	△
⑥ C(민간요소, 주변국)	△	○	○
⑦ W(의지요소)	○	×	△
최선의 대안	○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군사전략 유형판단 도구인 METT+TCW 요소를 고려하여 한국의 방위전략 유형을 판단해 본 결과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무(M)를 적합성과 용납성 측면에서 분석하면 임무달성의 적합성 면에서는 한국군이 주도권을 가지고 작전을 수행해 나갈으로써 군사목표의 달성

이 가장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세전략이 가장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용납성 면에서는 국제사회의 반발과 북한의 핵무기 위협상황 입증 면에서 북한의 공격이 실시된 다음에 대응조치를 취하는 수세-공세전략이 다소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임무에서는 적합성 면에서 ‘한국의 방위’라는 군사목표 달성이 가장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는 공세전략이 최선의 방위전략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적 상황(E)을 북한의 능력과 의도 면에서 분석하면 앞 절의 억제전략에서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을 가능성이 높고 한국과 미국을 대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의도가 있음을 천명했다는 사실에 대해 논의하였다. 북한의 핵무기 배치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추적감시를 하다가 북한의 공격징후를 포착하는 즉시 적대행위를 실행에 옮기기 전에 근원지를 한국군이 선제공격하여 파괴시킨다면 공세전략이 수세-공세전략보다 적의 능력과 의도를 좌절시키고 아군의 군사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유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지형 및 기상(T)은 수도권 작전중심 측면에서 분석하면 휴전선으로부터 한국의 국력이 총집결되어 있는 수도권까지의 중심이 매우 얇기 때문에 북한에게 초전일격을 허용한다면 대량파괴 및 살상이 발생되어 회생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지형 면에서 북한의 핵위협에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공세전략이 가장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기상은 한국과 북한의 방위전략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사료되어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넷째, 가용부대(T)는 현재 한국이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군사적 능력으로 선택한 군사전략의 실현가능성을 분석하면 수세전략과 수세-공세전략은 달성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반면에 공세전략은 현재 한미연합군의 전시 작전통제권이 미군에게 있고, 한국의 군사적 능력이 공세전략을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판단하에 타 군사전략에 비해 불리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가용부대 면에서는 수세전략과 수세-공세전략이 달성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렇지만 가용부대 면에서 불리한 상황은 한국군이 선제기습공격을 통해 상대적 전투력의 우세를 달성한다면 만회가 가

능할 것이다.

다섯째, 가용시간(T)은 공자(攻者)에게 작전의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공세전략이 수세전략이나 수세-공세전략에 비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징후를 포착하는 즉시 북한보다 먼저 공세행동을 선제적으로 취하여 북한핵무기를 파괴 또는 무력화시킴으로써 군사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여섯째, 민간요소(C)는 현대전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승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전장의 상황이 실시간에 전세계로 생중계되고 있다. 과거에는 전투가 군인들의 전유물이었다면 현재의 전투는 민간인들과 군인들이 함께 수행해 나가는 행위로 변화되었으며, 전쟁에 대한 혐오에 기반한 반전여론의 확산과 주변국의 전쟁이전 상태로의 회귀본능 등으로 인해 수세전략과 수세-공세전략이 공세전략에 비해 유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만약 북한의 핵무기 공격 임박징후가 포착된다면 이를 한국 국민들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향후 시행하게 될 선제적 군사행동에 대한 반감과 저항을 무마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의지요소(W)는 공세적인 전투의지를 가지고 작전에 임할 때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공세전략을 선택하여 한국이 의지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작전을 수행해 나감으로써 군사목표의 달성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를 근거로 북한핵 무기화에 대비한 한국의 군사전략 중 방위전략의 유형을 판단한 결과 ‘공세전략’이 최선의 대안으로 선택되었다. 정보화 추세와 최첨단 과학기술이 지배하게 될 미래전은 첨단 감시정찰체계(ISR: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 지휘통제체계(C⁴ I: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and Intelligence) + 타격체계(PGM: Precision Guided Munition) 등이 결합된 새로운 시스템복합체계(A System of Systems)에 의해 수행될 것이다. 따라서 적의 침략행위를 포착하자마자 신속한 지휘결심을 통해 정밀유도무기로 전략목표를 선제타격 함으로써

승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군사전략의 선택이 요구된다. 또한 한반도의 얇은 종심과 협소한 지리적 환경은 단 한번의 군사적 실수의 충격도 완화시켜 주기 어려운 여건으로 초전일격에 의해 한국의 군사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것을 요구한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북한 핵시대에 한국이 선택해야 할 방위전략은 공세전략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공격징후가 명확한 상황에서 북한에게 초전일격을 허용당할 경우에는 국가방위가 위태로울 경우에 자위권을 발동하여 북한의 침략행위를 포착함과 동시에 북한군을 타격하여 국가목표 및 군사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공세적인 군사전략의 구상은 자연스러운 발상이다. 그렇지만 공세전략이 북한의 핵무기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이라 할지라도 군사자원 즉, 무기체계를 북한핵무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공세적인 작전수행에 적합한 전략자산으로 내실있게 준비하지 않고 선언적 구호로만 그친다면 공세전략을 선택한 의미가 퇴색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공세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인 조기경보체계와 즉응작전전력 등 군사자원의 개발과 군사력 건설에 기반을 둔 군사전략의 발전노력이 필요하다.

3. 신(新)군사전략 구현방안

북한 핵시대에 한국이 선택한 신군사전략 중 억제전략은 ‘동맹억제전략’, 방위전략은 ‘공세전략’이 최선의 대안임을 논의하였다. 동맹억제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한미동맹이 보다 견고하고 항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세전략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군사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제반 인원 및 물자를 포함한 군사적 능력을 결정하는 요소인 군사자원이 공세전략의 군사전략개념을 충실히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전략적·논리적으로 타당한 군사전략개념을 선택했다더라도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군사자원을 구비하지 못한다면 군사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군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전

략개념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군사자원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서 군사전략개념은 군사자원이 가용한 범위 내에서 구상되어야 하며, 군사자원은 군사전략개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이 준비되어야 한다. 만약 채택된 전략에 대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전력의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면 군사력 소요제기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한다.

북한의 핵무장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핵무기 개발계획이 없는 한국이 선택한 동맹억제전략과 공세전략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한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첫째,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징후를 보이면 이를 포착할 수 있는 정보자산과 함께 한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의 핵무기와 핵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공격 무기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즉, 선제공격형방위시스템인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인 KAMD(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그리고 대량 응징보복체계인 KMPR (Korea Massive Punishment Retaliation) 등 ‘한국형 3축 체계’⁴³⁾를 차질없이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군은 북한군을 선제타격 하는 킬체인 능력을 높이기 위해 2020년 중반까지 정찰위성 5기를 독자개발 하는 ‘425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움직임을 정밀 감시하기 위해 외국의 위성 4기를 조기에 임차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⁴⁴⁾ 이는 한국이 현재 직면해 있는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바람직한 선택으로 여겨진다.

둘째,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미국의 핵우산(nuclear umbrella) 정책, 즉 미국의 대한국 확장적 전쟁억지(extended deterrence) 정책을 통해서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해야 할 것이다.⁴⁵⁾ 또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해 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미국정부와 협의하여

43)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를 2020년 중반까지 구축하기로 한 계획을 2016년 들어 북한이 핵기술을 활용한 도발수위를 높여감에 따라 2020년 초반으로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44) ‘킬체인 등 북핵 대응체계 3년 앞당겨 구축·핵집수함은 신중 검토’ 『한국일보』 2016년 10월 18일, 8면.

45) 김우상, 『신한국전략Ⅱ : 동아시아 국제관계』, 파주 : 나남, 2007, p.168.

도입을 추진중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즉 사드의 한반도 내 배치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 성주지역에 배치를 추진중인 사드는 한반도 전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전가(傳家)의 보도(寶刀)’가 아니다. 주요도시를 방어할 수 있도록 사드의 추가도입에 대한 논의에 신속히 착수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의 핵무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한국도 핵무장 수준의 강력한 핵 억제수단을 보유해야 할 것이다. 이를 구현하는 방법으로는 ①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한국에서 철수한 미군의 전술핵무기 재배치 요구, ② 비상시 자체 핵무장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핵물질의 농축과 재처리를 포함한 핵무장 선택권(nuclear option)의 추구, ③ 서독의 사례를 응용하여 일본과의 협력으로 핵무장을 하겠다는 압박을 통한 핵 공유(nuclear sharing) 권한의 획득, ④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후 자체 핵무장을 추진하는 방안 등이 있다.⁴⁶⁾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확실시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노출되는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① 한국에서 철수한 미군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절대무기인 핵무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핵무기로 맞서는 것이다. 또한 전술핵은 과거 한반도에 배치되었던 경험이 있고 국제정치의 상황변화에 따라 배치와 철수가 용이한 융통성과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한 다음에는 ② 핵물질의 농축과 재처리를 포함한 핵무장 선택권을 추구함으로써 잠재적 핵보유국으로 가는 것이 북한핵무기를 무력화시키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보장받는 첩경이라고 여겨진다. 반면에 ③ 핵공유 권한의 획득, ④ 자체 핵무장 추진 등은 국제사회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개연성이 크고 안보불안 증가로 인해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이 이들 방안 중에 선택하여 추진한다면 국제정치경제의 역학관계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46) 하대성, “북한 핵무장에 대비한 대한민국 핵억제전략 연구 : 핵보유 국가들의 핵무장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제24집 3호, 2016년 8월, pp.103-105.

이다.

넷째, 북한이 핵능력을 더 이상 강화시키지 못하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강력한 통제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북한의 핵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유엔안보리는 대북 제재조치를 취해왔다. 하지만 북한과 우호관계에 있으면서 대북 무역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는데 실패함으로써 북한의 핵무장을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⁴⁷⁾ 이행의 실효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협조를 얻어내기 위한 한국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핵폐기를 전제로 북한과의 대화와 타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핵의 폐기 목표에만 집중하여 조급하게 마음먹고 강공책만을 고집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북핵문제를 오직 대화를 통해서만 풀 수 있다는 편협한 시각에 매몰돼서도 안 될 것이다. 한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준의 강력한 억제수단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사용하여 북한핵무기에 대응한다면 한국이 받는 피해 또한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장래를 위해서는 무한한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당근과 채찍의 강은 양면전략을 구사함으로써 북한정권의 핵무장 해제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V. 결 론

한국은 동북아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반도’라는 지정학적 여건과 중세이후 현재까지 한반도 주변국가들에 비하여 국력의 열세로 인하여 900회가 넘는 외침을 받아왔다. 중국과 일본 등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기도 하였고

47)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는 북한의 광물거래 차단, 항공가로켓 연료의 수출금지, 북한에 드나드는 모든 화물의 검색 의무화, 북한 은행의 외국 신규지점과 영업소 개설 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어 비군사적 조치 중에서는 가장 실효성 있는 제재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제적 패권주의의 산물로 인하여 남북이 분단되었다. 이러한 남북 분단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와 주변국들에 의한 영향력으로 인해 성과가 미진한 상태이다.

북한은 김정은 일가의 3대 부자세습을 이어오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외교·국방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취약성이 노출되고 있다. 한국과의 체제경쟁에서 사회주의 국가의 한계로 인해 크게 열세에 몰리게 되었고 급기야 주민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의식주 문제조차 해결해주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북한정권으로서의 현재 자신들이 처한 암울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핵개발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북한은 핵개발의 목적이 미국을 타격하기 위한 수단이고 한국을 향해서는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노동당 규약에 ‘한반도의 사회주의화’가 명시되어 있고, 북한이 그동안 한국에 대해 지속적인 도발을 감행해 온 사실에서 북한의 한국에 대한 ‘핵무기 불사용’ 주장은 허구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북한핵의 무기화가 성공한다면 최대의 위협국가는 바로 한국이 될 것이다.

이 논문은 “북한핵의 무기화에 대비한 한국의 군사전략은 어떻게 구상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대명제의 해결을 위한 상념을 산물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여 해답을 구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군사전략의 개념은 무엇이며,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가? 군사전략이란 “국가이익과 국가목표 달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군사적 수단을 조성 및 운용하기 위한 군사계획 및 행동방책”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군사전략은 군사목표, 군사전략개념, 군사자원의 3요소로 구성된다.

둘째, 한국이 군사전략을 결정시에 어떤 요소가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군사전략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한국의 국가이익, 한국이 처한 안보환경, 군사력 등 다양하다. 북한핵의 무기화가 ‘생존’이라는 한국의 사활적 국가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한반도 안보환경에도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다. 또한 현재 한국의 군사력은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기에는 충

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국의 핵우산 정책, 즉 미국의 확장적 전쟁억지 정책을 통해서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한 상태에서 한국도 자체적으로 최단기간 내에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핵의 무기화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현 안보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군사전략을 선택해야 하는가? 군사전략개념은 평시에는 억제전략을 추구하다가 억제가 실패했을 경우에는 방위전략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선택해야 할 최선의 억제전략은 주한미군 전력을 활용한 ‘동맹억제전략’이, 방위전략은 주변국의 위협에 대하여 능동적·선제적으로 대처하여 군사목표를 달성하는 전략인 ‘공세전략’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군사전략 선택을 위한 분석도구로는 현재 한국군과 미군이 군사작전의 계획과 수행시에 활용하고 있는 METT+TC 요소에 의지(W)요소를 접목한 ‘METT+TCW’ 요소를 활용하였다.

넷째, 한국이 선택한 군사전략을 실효성 있게 구현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한국이 선택한 공세전략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적의 공격의 도를 조기에 탐지하여 파악할 수 있는 첨단 정보자산과 지휘통제시스템 그리고 정확하고 강력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공격무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현재는 한국군의 독자적인 능력으로 공세전략을 구현하기에는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첨단무기체계로 무장한 미군을 주축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창출된 한미연합전력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이다. 아울러 향후에는 한국군이 현재의 미군역할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군사적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군사전략에 대한 연구는 연구주제의 특성상 군사전략 이론의 다양성, 군사전략 개념의 모호성, 군사전략 요소 및 군사자원에 대한 체계화 곤란 등의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즉, 인간이 물질이면서 정신이 깃들여 있는 유기체적인 존재로서 정신적·물질적 요소가 상호 결합되어 있듯이 전략의 제요소들도 이와 유사하여 명확하게 체계화시킨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군사전략의 구성요소 자체로는 전쟁승리의 본질적 원인규명에 한계가 있고, 각 요소의 세부내

용을 체계화시키는 것도 제한점이 있었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바람직한 군사전략 선택에 있어서 METT+TCW 요소를 활용한 분석, 군사전략의 구성요소에 대한 체계화 시도, 군사전략 요소 상호간 동태성 파악, 공세적인 방위전략의 선택 등 그동안의 군사전략 연구에 있어서 소홀히 취급했던 분야를 체계화시켰다는 점에 이 연구의 가치를 부여하고자 한다. 다만, 이 연구의 진행간 노출된 한계점은 각 분야별 전략이론의 개발과 후속연구에 의해서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및 논문〉

- 권태영·신범철, “북한 핵보유 상황 대비 자위적 선제공격론의 개념과 전략적 선택방향.” 『전략연구』, 통권 제51호, 서울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1.
- 국방대학원, 『군사전략(이론과 적용)』, 서울 : 국방대학원, 1984.
- 국방부, 『국방백서 2016』, 서울 : 국방부, 2016.
- 김연수, “북한의 안보군사전략.” 『비교군사전략론』, 대전 :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 김우상, 『신한국책략Ⅱ : 동아시아 국제관계』, 파주 : 나남, 2007.
- 노병진, 『도해 손자병법』, 서울 : 도서출판 가나문화사, 1992.
- 류재갑, “현대군사전략개념.” 『연구보고서』, 92-13호, 서울 : 국방대학원, 1992.
- 리텔하트, 신상조 역, 『전략론(Stratagy: The Indirect Approach)』, 서울 : 양우당, 1982.
- 박창권, “북한의 핵 운용전략과 한국의 대북 핵억제전략.” 『국방정책연구』 통권 104호,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14.
- 박창희, “한국의 '신 군사전략' 개념 : 전쟁수행 중심의 '실전기반 억제.’” 『국가전략』, 제17권 3호, 성남 : 세종연구소, 2011.
- 박휘락, “북한핵에 대한 한국 억제전략의 분석 : “거부적 억제” 개념에 의한 방어노력의 재조명.” 『국제정치논총』, 제55권 2호, 서울 : 한국국제정치학회, 2015.
- 신정도, 『전략학원론』, 서울 : 동서병학연구소, 1970.
- 야전교범 0-1, 『전술』, 대전 : 육군본부, 2013.
- 양철호, “한국군의 평화유지활동(PKO)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 METT+TC 분석틀에 의한 군 파병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1권 제11호, 2015.
- 이영민, 『군사전략』, 서울 : 송산출판사, 1991.
- 이종학, 『현대전략론』, 서울 : 박영사, 1972.
- 조지연, 『민족생존전략』, 서울 : 병학사, 1983.
- 하대성, “북한 핵무장에 대비한 대한민국 핵억제전략 연구 : 핵보유 국가들의 핵무장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제24집 3호, 2016년 8월.
- 홍우택,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책 연구.”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13-09, 서울 : 통일연구원, 2013.
- Garnett, John, *Strategic Studies and It's Assumption*, in John Baylis, et. al(eds), *Contemporary Strategy and Policies*. New York Holms & Meier Pub., 1976.
- Headquarters of Department of the Army, *US Army FM 6-0 Mission Command*.
- JCS Pub., *Dictionary and Associated Terms*.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Defense, I, 1979.
- Karl von Clausewitz, 권영길 역, 『전쟁론(On War)』, 서울 : 양우당, 1982.
- Levite, Ariel, *Offense and Defense in Israeli Military Doctrine*.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1990.

Liddell Hart, B. H., *Strategy: The Indirect Approach*.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54.

Lider, Julian, *Military Theory: Concept, Structure, Problems*. Aldershot, England: Tower Pub., 1983.

Osgood, Robert E., *The Entangling Allianc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2.

Steward, John P. and Arther F. Lykke, Jr., "*Military Strategy: Theory and Application*." Carlisle Barracks, PA: US Army War College, 1982.

<인터넷 및 기타>

『국어사전』, http://dic.naver.com/search.nhn?dicQuery=%EB%AA%A9%ED%91%9C&query=%EB%AA%A9%ED%91%9C&target=dic&ie=utf8&query_utf=&isOnlyViewEE=&x=0&y=0.

“〈그래픽〉 1~5차 북한 핵실험 비교” 『연합뉴스』 (온라인) 2016년 9월 9일,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1000000.html?cid=GYH20160909000600044&input=1363m>.

“김정은, 핵폭발 시험 지속추진 지시 “육해공 구분 없는 핵공격 준비.” 『파이낸셜뉴스』 2016년 3월 11일.

“北 김정은, 핵무장 고려해 전쟁수행체계 정비 중.” 『연합뉴스』 (온라인) 2017년 5월 1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27/0200000000AKR20170427079_00014.HTML?input=1195m.

“北, 미사일 작전지도 의도적 노출... 美 위협하며 협상 제스처.” 『동아일보』 2017년 8월 16일.

“북한, 2020년까지 핵무기 최대 100개 제조” 『연합뉴스』 (온라인) 2015년 2월 25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2/25/0200000000AKR20150225002900071.HTML>.

“[북한 핵실험 10년] 북, 핵무기 실전배치 초읽기...저지할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 『경향신문』 2016년 10월 7일.

“북, 핵탄두 소형화 성공했다... 실전배치 현실화 주목.” 『세계일보』 2016년 9월 9일.

“용산에 북핵 타지면 최대 125만명 사망...핵무기 종류별 위력보니.” 『동아일보』 (온라인) 2016년 9월 29일, <http://news.donga.com/3/all/20160929/80543567/1>.

“[전문] 김정은 제1비서 7차 당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오마이뉴스』 (온라인) 2016년 5월 8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07576.

『조선노동당 규약』, 전문.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서문.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7일.

“킬체인 등 북핵 대응체계 3년 앞당겨 구축...핵잠수함은 신중 검토” 『한국일보』 2016년 10월 18일.

“한미정상회담 기간에··美대사관 앞서 "미국은 꺾패".” 『동아일보』, 2017년 6월 30일, A12면.

“'현무2' 탄도미사일, 800km 발사 성공··올해 실전 배치.” 『SBS 8뉴스』 2017년 4월 6일.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http://www.mois.go.kr>.

『행정학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59607&cid=42152&categoryId=42152>.

Albright, David, “North Korean Miniaturization.” 38 NORTH, February 13, 2013, <http://38north.org/2013/02/albright021313/>.

Joseph S. Bermudez and Jack Liu, “North Korea’s Punggye-ri Nuclear Test Site: New Activity at the North Portal.” 38 NORTH, March 28, 2017, <http://www.38north.org/2017/03/punggye032817/>.

Abstract

A Military Strategic Choice of South Korea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Weaponization

Lee, Sang-Taek(Wonkwang University)

On September 9, 2016, North Korea conducted their fifth nuclear test signaling nearly successful completion of their nuclear weapons program. This imposition is a life and death situation for South Korea due to the opposing position with North Korea who is directly acrossed the Demilitarization Zone. In order to overcome this security threat, what military strategy does South Korea need to develop? Based on this questions a study has been conducted to answer the concern.

The methodology for resolving the question produced numerous propositions: First, what military strategy is needed and what elements should be included? Second, which elements of the military strategy produce and impact on the decisions? Third, based on the current North Korean nuclear aggression, what kind of military strategy should South Korea choose? Forth, once chosen, what are the implementation plans for success? These four propositions were studied thoroughly. As mentioned above, in order to overcome this security threat, how can South Korea plan a military strategy. The choice of the best military strategy alternative that South Korea can choose from has reached the conclusion of the offensive strategy and Alliance deterrence strategy.

Key Words: Military Strategy, Deterrence Strategy, Defense Strategy, Offensive Strategy, Defensive-Offensive Strategy, North Korea Nuclear, METT+TC

투고일 : 2017년 7월 15일 • 심사일 : 2017년 7월 21일 • 게재확정일 : 2017년 8월 25일